

‘반려동물 친화도시’ 광주 만든다

시, 2023~2027 종합계획 마련

반려동물과 반려인이 늘어나면서 개 물림 사고, 반려동물 유기, 비반려인(일반시민)과의 갈등 등 사회적 문제가 증가함에 따라 광주시가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에 나선다.

광주지역 반려견이 10만마리가 넘고 반려묘가 5만 4000마리에 달하는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급증하고 있어 반려인과 비반려인, 반려동물이 함께 행복하게 살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광주시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해 실행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기준 광주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13만호에 달하고 반려인은 29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동물등록제에 따라 광주시에 등록된 반려동물도 매년 증가세다. 등록의무제가 시행된 2014년에는 1만 3000여 마리만 등록을 했지만 지난 2019년 4만 4000여마리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7만 2000여마리가 등록했다.

유기동물이 증가해 광주시 동물보호소 시설 부족에 따른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이에 대한 해결책도 마련됐다.

광주지역 유기동물 수는 지난 2015년 1703마리였지만 지난해 3138마리로 두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 7월까지 1902마리가 유기동물로 분류됐다.

이에 더해 지자체에서 들개 포획사업까지 시행하면서 동물보호소에는 ‘떠돌이 동물’들까지 모두 입

유기동물 보호소 가기 전 지자체 센터에서 보호하고

지자체, 임시보호·펫보험 지원...사육 포기 동물 인수

2025년 순천·담양에 ‘반려유기동물 공공진료소’ 설치

소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유기동물 입양률은 2020년 27.6%에서 2021년 26.5%, 2022년 22.6%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광주시는 해결 방안으로 앞서 지원하던 입양비와 실의사육견 중성화수술비에 더해 ‘안심 펫보험’과 ‘가정 임시보호’ 지원에 나선다.

유기동물 구조·보호 체계도 변화한다. 그동안 신고 접수되면 구청에서 구조해 시 동물보호센터에 넘겨 보호·입양하는 방식으로 운영됐지만 내년부터는 구청 구조 후 자치구동물보호센터에서 10일간 보호한 뒤 시 동물보호센터로 옮겨가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광주시광역동물보호센터가 완공되면 2024년 하반기부터 그동안 민간 위탁을 하던 동물보호소를 광주시가 직접으로 운영한다.

이에 따라 동물보호소 입소 기준도 강화된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길고양이는 구조 제외대상이었지만 다쳤거나 어미와 분리돼 생존이 힘든 3개월 미만의 고양이는 구조해 보호하고 있었다. 하지만 운영규정 개정에 따라 길고양이의 경우 구조 후 치료가 끝난 뒤에는 제자리에 방사한다.

광주시는 또 내년부터 임시보호 가정에 1마리당 20만원의 비용을 지원한다. 임시보호기간은 1개월

에서 최대 2개월까지로, 임시보호 완료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반려인이 불가피한 사유로 사육을 포기한 동물에 대해선 지자체가 인수해 유기를 방지할 계획이다.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각종 정책도 마련됐다. 광주 5개 자치구별 반려동물 출입이 잦은 공원 2곳을 선정해 배변봉투함을 설치한다. 또 자치구에서 지정·운영하는 길고양이 급식소에 물품·사료를 지원한다.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인식하며 함께 살아가는 가구가 늘어난 데 따라 반려동물과 문화를 접목시킨 시설도 확충된다.

먼저 광주시는 2026년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수량공원 일대에 반려동물 놀이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후에는 중·장기 목표로 반려동물복지 테마공원과 반려동물 장묘시설(화장장) 설치를 두고 있다.

잡은 개물림사고 발생에 따라 ‘맹견기질평가’도 운영한다. 맹견(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사육시 기질평가위원회의 기질평가를 거친 뒤에 가능하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광주경찰청장 한창훈·전남경찰청장 박정보

경찰청 고위직 간부 인사

경찰대학장에 김수환 임명

광주경찰청장에는 한창훈(간부후보생 45기, 무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이, 전남경찰청장에는 박정보(간부후보생 42기, 진도) 서울경찰청 수사처장이 각각 내정됐다.

26일 정부는 치안정감 및 치안감에 대한 승진·전

보인사를 단행했다.

경찰 총수인 경찰청장(치안총감) 바로 아래 계급인 치안정감 승진으로 경찰대학장에 김수환 경찰청 정보국장과, 인천경찰청장으로 김희중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이 각각 임명됐다.

이와 함께 치안감·경무관 승진·전보 인사도 발표됐다. 이충호 전남경찰청장은 제주경찰청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임병숙 광주경찰청 수사부장이 승진해 전북경찰청장으로 가게됐다.



한창훈 청장

박정보 청장

광주경찰청 수사부장은 판순기 인천경찰청 수사부장이 오고, 광주경찰청 생활부장은 박경수 광주경찰청 자치경찰부장이 자리를 옮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엉터리 초안 폐기하라”

광주·전남 환경단체, 한수원 규탄

광주·전남 환경단체들이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두고 “엉터리 초안을 폐기하고 주민 공람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26일 한빛핵발전소대응호남권공동행동은 이날 영광 한빛원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완요구

에도 불구하고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형식적인 답변과 기술적인 검토는 지자체의 보완요구 사항이 아니라며 지자체에 공람 강행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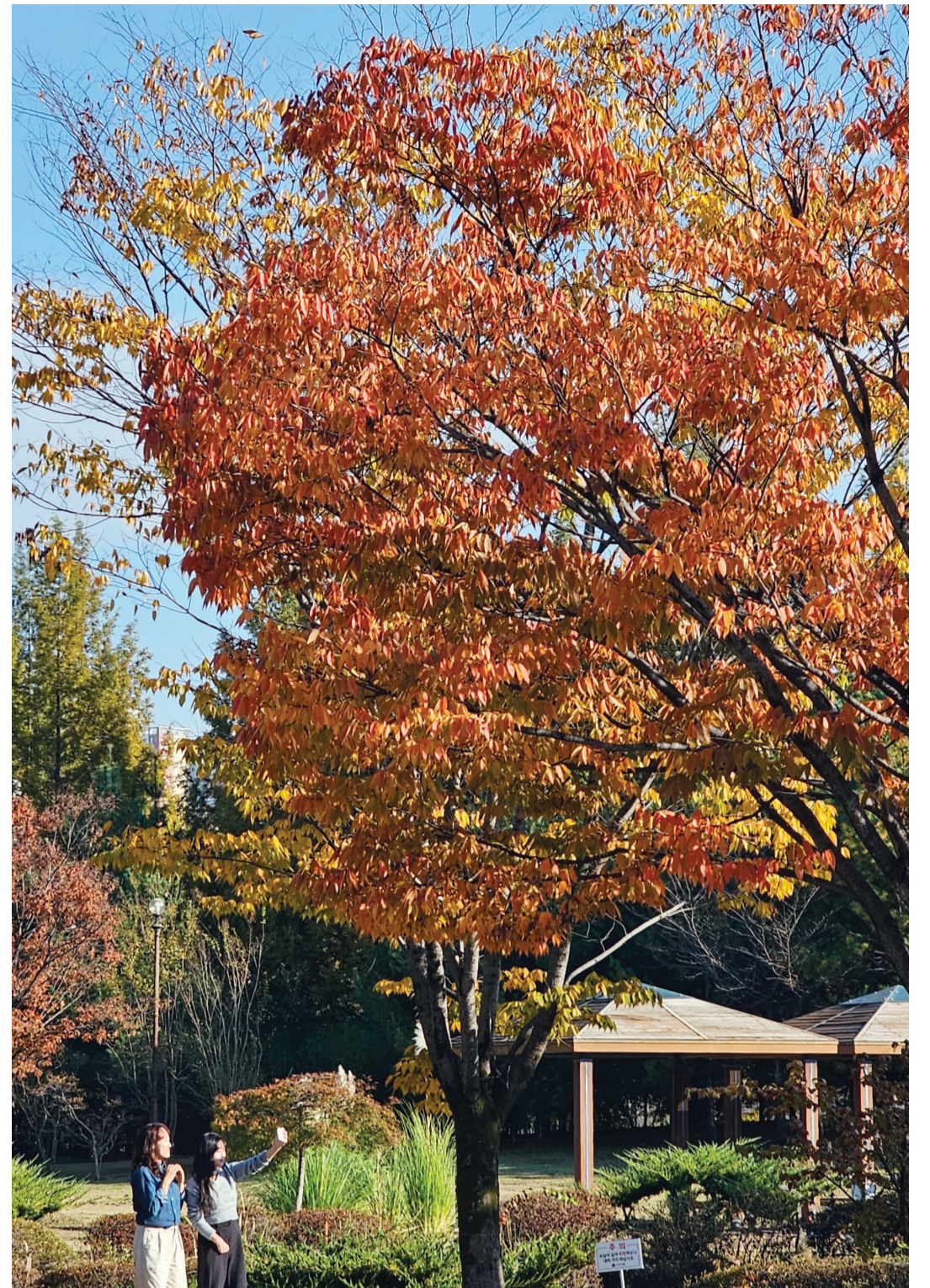
이어 “제대로 된 검토와 적절한 보완요청은 지자체의 당연한 권리에도 불구하고 제대로된 답변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한수원이 제대로 보완조치 못한다면 지자체는 초안을 반려해야 한다”고 목소

리를 높였다.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절차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지자체 초안 공람이 지난 19일 마무리됐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 6개 기초지자체(영광, 함평, 무안, 장성, 고창, 부안) 중 무안과 장성은 공람을 선택했고 나머지 지자체는 주민공람 보류를 결정했다.

공람을 보류한 지자체는 한수원에 보완 사항을 제출해야 한다. 공람보류를 한 지자체는 한수원에 최신기술기준 미적용, 중대사고 미상정, 다수호기 사고영향평가 누락, 주민대피·보호대책 미반영 등을 보완요청했다.

/김다인 기자 kdi@



발그레 볼그레 광주시 북구 광주 과학기술원 교정을 찾은 시민들이 26일 울긋불긋 물들어가는 나무 사이를 거닐며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이명주 기자 mjna@

52년 된 ‘계림육교’ 내달 4일 철거

‘광주 4호’ 계림육교가 52년만에 철거된다. 광주시 동구는 오는 11월 4일 광주시 동구 계림동 계림초등학교 앞 계림육교를 철거한다고 26일 밝혔다.

동구는 노후화된 계림육교에서 안전사고가 발생 가능성 있고, 최근 차량 통행을 우선하던 교통 정책이 ‘보행자 중심’으로 바뀌고 장애인·노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정책이 시행되는 데 따라 육교를 철거하기로 했다.

지난 1972년 설치된 계림육교(길이 23.5m, 폭 3m, 통과 높이 4.4m)는 1969년 설치된 중앙육교·양동육교, 1972년 수창육교에 이어 광주에서 네 번째로 세워진 육교다.

이번 철거 작업은 도로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11월 4일 밤부터 5일 새벽 사이에 이뤄진다.

앞서 동구는 지난 20일 예산 6500만원을 들여 육교 인근에 신호등·횡단보도와 신호·과속 단속 카메라(시속 30km 제한)를 설치했으며 점자블럭, 어린이보호구역울 표시하는 노란색 횡단보도 등 교통약자 이용시설을 설치했다.

한편 최근 5년 사이 광주에서는 5개 육교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고, 계림육교가 철거되면 광주에는 65개 육교만이 남게 된다.

지난 2021년에는 광주일보 주도로 세워진 광주 최초의 육교 ‘중앙육교’가 철거됐다.

중앙육교는 1969년 4월 중앙초교 앞에서 초등학교 여학생이 뺑소니 교통사고로 숨진 것을 계기로 광주일보가 6차례에 걸쳐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을 벌여 시민 성금을 모아 세운 육교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함께하는 100년 농협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쿨!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쿨! 바로 바로 확인까지 쿨!

올바른 POINT UP 카드
국내·외 전 가맹점에서 무제한 포인트 적립!
전 가맹점 최대%적립 + 생활밀착형 가맹점 추가 적립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국제공항 라운지 무료이용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2201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속박비+식비) 하루 10만원(임시상90일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특약가입시) 월5만원으로 만기시 80%환급 (매월변동가능, 공시이율 2022년 1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362-8400~6 FAX. 062)362-8407

용산지점 062)526-0222~3	유동지점 062)512-1984~5	유덕지점 062)373-3235~6	운암벽산지점 062)529-5335~6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치평지점 062)381-8212~3	동림지점 062)513-8521~3	동운지점 062)528-2640~2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로컬푸드(시청) 062)364-8400
쌍촌지점 062)381-6551~2	운암지점 062)527-3295~6	배틀지점 062)381-1971~2	양동센터지점 062)361-4472~4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외정지점 062)372-0421~3	운천지점 062)371-2772~3	상무동지점 062)372-3741~2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